

書簡을 통해 본 박세당과 남구만의 교유 양상

최윤정*

<차례>

1. 서론
2. 박세당과 남구만의 관계와 書簡 교환
3. 書簡에 나타난 교유 양상
 - 1) 어지러운 정국 속 去就 논의
 - 2) 時事와 학문에 관한 의견 조율
 - 3) 신변에 대한 염려와 友誼 표출
4. 書簡을 통한 교유의 가치와 의의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 소론계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계 박세당과 약천 남구만의 교유 양상을 書簡을 통해 고찰하였다. 서간은 발신자가 특정한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라는 장르상의 특징 때문에 여타의 산문과는 변별되는 가치를 지닌다.

서간을 통해 살펴본 서계와 약천과의 교유 양상은 다른 장르의 글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었던 이들의 고뇌와 갈등, 時事와 학문에 대한 견해, 인간적인 애정 등을 보다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지러운 정국 속에 상대방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둘째, 時事와 학문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이들은 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셋째, 이들은 떨어져 지내면서도 서로의 신변에 대해 염려해주었고, 정쟁 때문에 유배령을 받은 상대방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를 해주었다.

정쟁이 많았던 시대에 두 인물이 주고받았던 서간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큰 힘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이었을 것이며, 이들의 소통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주제어 소론, 정쟁, 서간, 교유, 조율, 소통.

1. 서론

서계 박세당(1629(인조7)-1703(숙종29))과 약천 남구만(1629(인조7)-1711(숙종37))은 조선 후기 소론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사상가이다. 이들은 인척 관계이면서 절친한 지우로 평생을 교유하였다. 이들의 문학과 사상에 대한 개별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지만,¹⁾ 이 두 사람의 교유 자체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들은 평생을 교유하며 다수의 시와 書簡²⁾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적 교유의 차원을 넘어서 당대 시대상과 소론계 대표 문인들이 형성했던 관계의 실상을 살필 수 있게 한다. 특히 書簡은 발신자가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쓴 것으로, 공식적인 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時事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갈등, 상대방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이나 진솔한 감정 등을 표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
- 1) 두 인물의 문학에 대한 대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성당재, 「약천 남구만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영주, 「조선후기 소론계 문인의 문학론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6; 최윤정, 「서계 박세당 문학의 연구-사상적 특징과 문학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주영아, 「박세당의 사유체계와 작품세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1.
- 2) 한문학에서 편지와 관련된 장르는 書, 簡牘, 尺牘 등으로 명명되는데, 본고에서는 두 인물의 편지가 수록된 書와 簡牘의 의미를 감안하여 ‘書簡’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

서계와 약천이 생존했던 시기는 예송과 여러 정쟁이 이어졌던 때였다. 학문·사상·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고, 서인 내부에서도 노론과 소론의 분기가 이루어졌다.³⁾ 끊임없는 정쟁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국이 전개되어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기 어려웠던 당대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書簡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시도하고 동류 의식을 형성해 갔던 당대 지식인들의 모습을 추적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書簡을 통해 본 두 인물의 교유 양상을 살피고 그 의의와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⁴⁾

2. 박세당과 남구만의 관계와 書簡 교환

서계는 1645년(인조23) 17세 때에 약천의 누나인 宜寧南氏와 혼인을 하였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십여 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였고, 서계와 약천은 한 집에서 살면서 누구보다도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시문을 창수하고 시사를 토론하며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

3) 강신업, 『조선후기 소론 연구』, 붕명출판사, 1996, 7면.

4) 당대 소론계 인물의 ‘書簡’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여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선 소론계의 대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세당과 남구만의 서간을 통한 교유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대 문학사에서 본 연구의 총체적인 의의를 입증하는 작업은 동시대 書簡 분야의 연구가 보다 진척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며, 본고는 해당 분야 연구의 試論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김세정은 명재 윤증과 서계 박세당의 학문과 교유 관계, 『동서철학연구』 42호, 한국동서철학회, 2006.)에서 윤증과 박세당의 학문적 경향 차이와 사상적 특성을 주로 논하면서, 윤증이 박세당에게 보냈던 서신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서신에 대한 것이 중심 내용이 아니고, 두 인물이 상호 교환한 편지가 아니라 윤증의 작품만을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었다. 서계가 약천을 대상으로 쓴 교유시만도 20제 44수에 달해 긴밀했던 이들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상호 주고받은 작품을 통해 이들의 교유가 서계의 수학기부터 은거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 특히 약천은 서계 생전에 시문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계가 죽은 후에는 <西溪朴公世堂言行錄>과 <祭西溪朴兄文>을 직접 저술 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생전에 서로에게 보낸 편지는 각각 개인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서계가 약천에게 보낸 편지는 書와 簡牘으로 구분되어 있고, 남구만이 서계에게 보낸 편지는 書에 속해 있다.⁶⁾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낸 편지 목록을 시기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박세당과 남구만의 書簡 목록>

발신자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박세당		남구만		남구만	박세당
시기	나이	주요 내용		시기	주요 내용
1677(숙종3) 7.8.	49세	안부, 그리움			
날짜 미상 2편		아들 박태보의 귀양, 학문적 논의 『老子』			
1678(숙종4) 11.9.	50세	부인 정씨의 죽음			
날짜 미상 1편		상대방의 去就			
1679(숙종5) 1.25.	51세	상대방의 去就			
2.9.		상대방의 去就			

5) 최윤정, 앞의 논문, 24면.

6) 박세당이 남구만에게 보낸 편지는 『西溪集』 권7 書에 2편, 권19 簡牘에 34편이 수록되어 있고, 남구만이 박세당에게 보낸 편지는 『藥泉集』 권30 書에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작품 인용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국역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작품 인용문의 페이지 수는 원본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3.21.		남구만의 거제 유배		
4.16.		귀양 간 상대방에 대한 염려		
6.25.		상대방의 안위 걱정, 본인 아들과 며느리의 병세 악화		
1689(숙종15)	61세	이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		
1690(숙종16)	62세	큰형수의 죽음		
1691(숙종17)	63세	服制 관련 논의		
1693(숙종19)	65세	손녀의 죽음		
날짜 미상 1편		時局, 상대방의 去就		
1694(숙종20) 4.18.	66세	희빈 장씨에 대한 논의		
윤4.6.		時局, 죽은 아들에 대한 평가		
6.24.		상대방의 去就		
7.2.		상대방의 去就		
8.8.		時局, 상대방의 去就		
1695(숙종21) 1.4.	67세	상대방의 去就	1695(숙종21)	
1.15.		상대방의 去就		
3.27.		윤증 천거 문제	3.17.	자신의 去就
날짜 미상 1편		상대방의 疏章 초고 검토	3.24.	윤증 천거 문제
1696(숙종22) 2.24.	68세	민생 문제	1696(숙종22)	
4.15.		박필성 집안 비문 문제		
4.17.		獵等, 推恩 관련		
9.16.		안부, 去就	9.8.	건강, 질병
11.20.		안부, 去就	11.20. (외 1편)	자신의 去就
1697(숙종23) 6.17.	69세	안부, 질병	1697(숙종23) 윤3.25.	안부, 교유
날짜 미상 1편		학문적 논의 『書經』 <禹貢>	8.1.	안부, 교유
			1698(숙종24) 8.26.	짧은 해후에 대한 아쉬움
			9.2.	학문적 논의 『書經』 <禹貢>

			1699(숙종25) 7.27.	안부, 去就
			10.20.	질병, 처세
			1700 (숙종26)12.	東峯 김시습에 대한 견해 차이
1701(숙종27)	73세	世變, 질병	1701(숙종27) 7.20.	만남 기약
			10.19.	안부, 去就
			11.10.	안부, 去就
1702(숙종28) 5.15.	74세	유배령을 받은 약천 위로		
7.11.		牙山에 유배된 약천위로		
			1703(숙종29) 5.9.	유배령을 받은 서계 위로
<시기 불분명>	答南雲 路書	『孟子』<滕文公 上>, 十一稅數 논의		
1687-1688 추정	與南相國 九萬書	先親의 讞狀 저술 부탁		

위 표에 나타나듯이 박세당이 남구만에게 보낸 편지는 40대부터 남아 있는데 비해 남구만이 박세당에게 보낸 것은 60대 이후 것만 남아 있어 남구만의 개인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 방식도 각 문집마다 차이가 있다. 『西溪集』 권19 簡牘에 수록된 34편의 편지는 <與南雲路九萬>이라는 하나의 제목 아래 시기별로 편지가 정리되어 있고, 『藥泉集』 권30 書에 수록된 15편의 편지는 각각에 대해 제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

서계가 약천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상대방이 힘든 일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소식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계는 유달리 가족의 죽음을 많이 겪었는데 자신의 부인, 아들, 형수, 손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느낀 처절한 슬픔을 숨김없이 상대방에게 드러내 기도 하였다. 그리고, 약천이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적극

적으로 그의 처지를 위로해 주었다.

특히, 서계는 약천의 去就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4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은거기에 들어간 서계와는 달리 만년까지 정계에 몸담고 있었던 약천의 처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서계는 공식적으로는 정계를 떠나 있었지만, 뒤늦게까지 정계에 남아 있었던 약천에게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현실 상황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유배령을 받게 된 서로에 대해서도 晩年 최후의 순간까지 서로에 대한 염려와 위로를 했던 이들의 편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편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의 교유 양상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⁷⁾

3. 書簡에 나타난 교유 양상

1) 어지러운 정국 속 去就 논의

약천 남구만은 61세 때인 1689년(숙종15) 1월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기사 환국이 단행되어 서인이 조정에서 물러나고 남인이 들어왔다. 이 때 인현왕후도 폐비되고 우암 송시열도 사사되었으며, 약천도 결국 4월에 삭탈관직과 문외출송을 당하고 다시 강원도 강릉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5월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약천은 5년 간의 공백기를 거친 후, 1694년(숙종20) 4월 갑술환국이 단행되면서 다시 영의정으로 조정에 복귀했다. 얼마 뒤 인현왕후

7) 자료의 특성상 두 사람이 상호 교환한 서간 중 한 쪽 것만 남아 있어도 그 내용을 참조하여 주제를 추려내었고, 상호 교환한 편지가 남아 있는 만년 시기의 작품을 주로 다루었다.

도 복위되었는데, 이를 투기하는 희빈 장씨와 함께 희빈의 오빠인 장희재가 인현왕후를 해치려는 모의가 발각되어 장희재가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약전은 그가 죽게 되면 희빈 장씨가 위태로와져 결국 세자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장희재는 유배에 그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약전은 계속해서 노론측으로부터 역적 장희재를 비호한다는 비방을 받아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약전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지 않고, 누차 사직하기를 청했지만 임금의 윤험을 받지 못했다.⁸⁾

1695년(숙종21) 1월 4일에 서계가 약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러한 정황이 상세하게 나타난다.

“(전략) 태형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여 훌륭한 풍속을 이루어 후세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형의 역량이 비록 남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남을 따르고 본받아 드디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군신 상하의 倫紀를 없게 만든 뒤에야 옳게 여기시겠습니까. 태형이 지금 직임을 그만두려 하나 70세에 사직을 청하는 것도 아니요 어느 날 문득 떠나가는 것도 아니니, 끝내 청을 윤험받지 못할 듯합니다. 또 무슨 수로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으로 벼슬을 그만두지 않고 의리에 합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태형이 처한 바는 중류의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는 상앗대나 무너지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일이 잘못될 줄 알고 도 오히려 다시 태연히 개의치 않는 것은 인자가 차마 할 수 있는 바가 아닐 듯합니다. 또한 태형이 오늘 기필코 떠나기를 구하는 것은 무슨 연고 때문입니까. 어찌면 태형을 해치려는 자가 많아 끊임없이 뒤흔드는 것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공이 자신이 떠나면 배가 침몰할 줄 알고 도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갖은 수모에 동요되어 상앗대를 버리고 물러앉아 배가

8) 성당제, 앞의 논문, 24~25면.

전복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태형이 이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후략)⁹⁾

이 편지에서 서계는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떠나버린 박세채, 윤지완, 신익상의 예를 제시하면서 약천의 去就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개인의 일신만을 생각하고 홀연히 떠나간 이들을 질책하고, 약천만큼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서계는 본인의 논의를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사공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배가 침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유를 들어 약천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귀양 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충언을 다했던 약천의 모습을 상기하며, 지금은 침묵하며 사직을 청하는 약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강개한 목소리로 “정색하고 조정에 서서 邪正을 분변하고 是非를 밝혀 조금도 스스로 꺾이지 않고서 의연히 거세게 흐르는 물살 속의 砥柱가 되어야 합니다.”¹⁰⁾라고 역설한다.

서계가 약천에게 보낸 편지에는 약천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반대파 세력이 득세한 상황에서 소론의 영수인 약천 남구만의 사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9) “(前略)台兄卽觀此事 如何信謂可以導世成俗而爲訓將來乎 台兄力縱不能救人之失 何忍從而效之 遂令東土一方 無君臣上下之倫而後爲可哉 兄今欲釋負 非七十辭與一夕遁去 則恐終不可得 抑不知有何道理可以不出兩塗而能合於義也 且台兄所處 卽中流之操篙而傾廈之一柱也 知身去而事敗 猶復恬然不以爲意 恐非仁者所忍爲也 抑台兄今日必於求去 將爲何故 豈不以害之者衆 不勝其敲撼而已乎 篙師知身去而舟敗 猶動於旁人之屢侮 投篙却坐 聽其淪覆 雖至愚不爲之也 台兄之明 不念此乎(後略).” 1695년(숙종21).1.4. (『西溪集』 권19, 388면.)

10) “正色立朝 辨邪正明是非 不少自貶 毅然爲橫流之砥柱.”

정국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1월 15일에 서계가 약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져서 나타난다.

“(전략) 삼가 살펴보니, 오늘 그 지위에 처하여 역량이 이를 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형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형은 스스로 헤아린 바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평소 시대를 저버린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또 어찌 戰時와 다르다느니 江湖로 들어간다느니 하는 등의 말로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금의 事變은 끝이 없으니 한 가지 절조만을 지킨다면 결핍하면 잘못될 것입니다. 어진 이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때에 따라 합당하게 처신하여 정도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마땅한 도리는 붕당을 나누어 각립한 상황에서 그 마음을 스스로 지켜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시비를 분별하여 기어이 천지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후략)”¹¹⁾

상대편은 목숨을 걸고 혈전을 벌이는데 그에 대해 대항할 만한 인물이 약천밖에 없다는 것이 서계가 약천의 사직을 계속 만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서계는 한 개인의 절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알맞게 처신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붕당이 각립한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곡하게 논한 서계에 대해 약천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그가 즉답한 편지가 남아 있지 않아 살펴기가 어렵다. 다만, 2개월 정도

11) “(前略)竊觀今日身處其位 力可爲此 又可以不負其心者 唯兄一人而已 豈兄之所自度者不及 此愚陋之所期望者失 其謂歟 不然者 又豈可以異金革入江湖等說自諉解也 古今事變無窮 徒守一節 動必有跌 所貴乎賢者 能隨時處當 不失其正 今日之宜 唯思於分朋各立中 自靖其心 是是非非 一由至公 期於俯仰而無愧怍而已 (後略).” 1695(숙종21).1.15. (『西溪集』 권19, 389면.)

후에 약친이 서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의 대체적인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

“방금 답장을 받아 한가한 가운데 체후가 건승하심을 우러러 살피게 되어 기쁘고 위로됨이 그지없습니다. 편지의 수많은 내용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마지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혼자 힘으로는 결코 중론에 맞설 수가 없어 조만간에 반드시 이 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것인데, 걱정하고 한탄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에게서 밥 한 끼를 먹여 준 은혜를 입어도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더구나 이처럼 지극한 국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반드시 몸을 바치고자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만 신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도리로 삼으면서도 반드시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것을 중요한 계책으로 삼아야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하여 자신할 수 없으며 또 염치를 잊고 녹봉을 탐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실로 두렵습니다. 만약 만부득이하여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혹 저를 용서해 주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서 태연히 직책을 맡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분분한 구설에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떠나가거나 머무름에 아직 일정한 계책이 없으니, 이로써 절도를 삼고자 할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마침 손님이 왔기에 바빠서 이만 줄입니다.”¹²⁾

이 편지에서 약친은 본인의 입장을 간결하지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서계의 조언은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겠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상대

12) “卽承覆札 仰審間中啓處益福 欣慰欣慰 所示多少 佩服無已 雖然弟之獨力 必不能抵當衆議 早晚必以此紛拏 憂歎如何 此間進退 凡人雖一飯之德 尙思報效 況受國恩至此 豈無必欲致身之意耶 但人臣雖以自盡其心爲道 亦必以得上爲定計 而弟則於此有不能自信者 且忘廉貪祿之誚 實可懼 若有萬不得已必出之事 則人或恕我 而如不然 晏然在職 何以自解於多口之紛紛 去與留 猶未有一定之計 欲以此爲節度耳 多少適有客至 恩惠不宣.” 1695(숙종21) 3.17.(『藥泉集』 권30, 502면.)

방의 중론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약천은 직책을 맡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윗사람의 신임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어지러운 정국에서 다수의 입장이 아닌 소수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것, 자신을 도와줄 실제적인 세력이 없다는 것 등이 약천을 더욱 망설이게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가치 판단은 명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적인 환란이 많았던 당대 상황을 감안하면 약천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직을 청하게 된 계기를 짐작할 수 있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말은 하면 할수록 오해를 낳고 정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당시 약천의 입장이나 태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당대 얼굴 없는 재상이라는 평가를 받은 명재 윤증의 정계 진출과 관련된 약천과 서계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어 살펴볼 만하다. 명재 윤증은 두 인물과 동년배이고 서계와는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서계의 仲兄인 朴世堧는 윤증의 매형이었고, 世堧의 후사가 없어서 系子로 간 서계의 차남 泰輔는 윤증의 養外甥이었다. 이들은 동일한 정치적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학문적으로 끊임없이 논의를 진행하며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¹³⁾

윤증은 송시열 문하 중에서 가장 뛰어나 고제로 지목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선거 사후 송시열이 그의 묘지명에 강도의 일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계기로 송시열을 등지게 되고, 결국 이 일로 명재는 ‘스승을 배반했다.’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기에 이른다. 그는 일찍이 仕宦에 뜻을 버리고 학문

13) 최윤정, 앞의 논문, 25면.

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한 적이 없지만 36세 때 학문의 조예가 출중하다고 하여 內侍敎官에 발탁되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관직이 제수되지만, 그는 실제로 한 번도 實職에 나아가 벼슬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소론의 영수로서 정계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말년까지 지대했다.¹⁴⁾

1695년(숙종21)에도 윤증을 찬선으로 제수하는 일이 생기는데¹⁵⁾, 이와 관련하여 서계와 약전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상호 의견을 피력하였다. 약전이 3월 24일 서계에게 이 문제로 먼저 편지를 보내고, 서계가 3일 후에 답장을 보내왔다.

약전은 조정에서 윤증을 등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반대파와 찬성파의 논리를 각각 제시하였다. 반대파는 윤증의 등용을 무조건 배척하는 입장이고, 찬성파는 윤증의 등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전이 걱정한 점은 윤증의 천거 그 자체보다는 그 이전부터 서로 반목하고 있는 분당이 또다시 이 문제 때문에 격렬하게 대립하여 국가의 안위와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윤증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인물을 등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를 시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군주와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서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고금에 없는 일이고, 나중에 반대파의 비방을 받게 되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¹⁶⁾

이에 대해 서계는 약전의 견해에 동의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전했다.

14) 이은순, 『국역 명재유고』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6, 3~4면.

15) 『숙종실록』 3월 25일(병술), <서종태·유명홍·이의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인용, 이하 동일본 참조)

16) 1695(숙종21), 3.24. (『약천집』 권30, <與西溪朴兄>, 502면.)

“(전략) 논하신 尹令[윤중]의 일은 보내온 편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히 옳으니, 자세한 곡절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더구나 윤령의 평소에 自定한 의리는 꺾을 수 없음이 분명한 데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한 때 고상함에 의탁한 無故한 사람들의 부류와는 같지 않으니 조정에서 오직 관대하게 용서하여 그 뜻을 꺾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 끝까지 강요하여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굳게 지켜 온 절조를 온전히 할 수 없게 하려 한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다만 어진 이를 좋아한다는 이름만 있고 그 실상은 없습니다. 또 부화한 설에 동요되어 이처럼 마음이 쏠리니 매우 가탄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좌규의 말을 얼핏 들으니, 지금 우선 이 윤령을 버두어 그의 뜻을 꺾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게 되고 말 것입니다.”¹⁷⁾

우선 서계는 자정한 의리로 재야 학자로서 지내고 있는 윤증을 굳이 조정에 끌어들이려고 한 저의에 대해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어진 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상이 없고 부화한 설에 동요하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윤증의 절조를 온전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약천과 서계의 염려는 같은 해 실록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지나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전략) 진사 이정열 등 90여 인이 상소하여, 성의와 예의를 돈독히 하여 윤증을 소환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우악한 비답을 내려 獎諭하였으며, 그 뒤에 사관을 보내 윤증을 勉諭하였다. 윤증이 갑술년 이후로 남구만·유상

17) “(前略)所論尹令事 來諭正是 縷縷曲折 無不有如此焉 況彼平素自定之義 決於不可回 非如無故之人一時託高者之比 則在朝廷所以待之 惟當優假 勿枉其志 何可強迫不已 必欲使人不得全其所守之節也 今世之人 徒名好賢而未有其實 又爲浮躁之說所動 彼靡如此 深可歎也 頃間 似聞左揆言 今且捨置 此令無撓之 亦不能不爲衆所惑乎 望兄力執 勿爲紛紛者所奪 如何如何 必不以此受妨賢之咎矣.” 1695(숙종21). 3.27. (『서계집』 권19, 389면.)

운 등이 끌어줌에 힘입어 비록 舊職에 처하기는 했으나, 士論이 모두 배척하고 허여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또한 준례에 따라 타일러 부를 뿐 반드시 불러 올리려는 의사는 없었다. 이정열 등은 바로 사사로이 서로 사모하고 허여하는 자들이므로, 상소를 올려 소환하기를 청해 한때에 자랑하려고 하니, 견식이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다.”¹⁸⁾

이 실록 기사는 임금이 윤증에게 관직을 제수한 것은 본의가 아니라 준례에 따라 한 것일 뿐이라 하며 윤증에게 우호적 세력을 기롱하는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서계와 약천이 우려했던 반대파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실제로 윤증에게 평생 제수되었던 관직의 목록이나, 윤증이 죽은 뒤에 한 번도 그를 만나 보지 못했던 것을 한으로 여기며 숙종이 弔詩를 지어 추모하기까지 한 사실을 살펴보면 윤증에게 관직을 제수한 임금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다.

어질고 현명한 재야 학자만이라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온전하게 지켜내고 싶어했던 서계와 약천의 태도는 당대 어두운 정치적 현실의 일면을 방증해주는 자료이다. 겉으로는 국가와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는 정쟁으로 서로를 핍박하기에만 급급했던 당대 정치가들. 그 속에서 본인과 동료들의 거취에 대한 고민은 그야말로 생사를 건 분투이자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2) 時事와 학문에 관한 의견 조율

약천은 時事를 처리할 때,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많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선택하였고, 시행할 때는 반드시 實用을

18) 『숙종실록』 3월 27일(무자), <진사 이정열 등이 윤증을 소환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강조하였다.¹⁹⁾ 이러한 경향은 서계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서계도 先儒의 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배척하는 당시 世人들과는 달리, 합리적으로 이치를 따지고 결정하는 약천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속내를 드러낸 적도 있었다.²⁰⁾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들은 서간을 교환하며 진지하게 의견을 조율하였다. 時事와 학문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도 서로 배척하지 않고 자신의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서계와 약천이 만년에 서간을 교환하면서 제시한 견해 차이는 다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생 구제책과 관련된 것이다. 서계는 1696년(숙종22) 2월 24에 약천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상에 맞지 않은 조정의 민생 구제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서계는 자신이 향촌에 거처하고 있으므로 약천이 살피지 못하는 민간의 이해와 완급을 한두 가지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있다. 조정에서는 어려운 백성을 구제해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백성들이 곡식을 받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곡식이 부족하기도 하니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항변한다. 곡식을 옮겨 준다는 명칭만 있고 실상이 없는 민생 구제책을 비판하고 있다. 굶주려 죽은 시체가 날마다 쌓여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조정의 정책은 내년의 굶주리는 자를 구제하고자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는 “태형의 사업이 또한 다만 이 정도 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으니, 어찌 개연히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당돌하니 매우 황송합니다.”²¹⁾라고 직접적으로 약천을 비판하는 심

19) 김영주,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3권,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3, 206면.

20) 『서계집』 권7, <答南雲路書>, 125~126면.

21) 1696년(숙종22) 2.24. (『서계집』 권19, 390면.)

회를 내보이고 있다. 이들은 절친한 동료였지만 서로에게 허심탄회한 비판도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錦平尉 朴弼成(1652-1747) 집안의 비문 작성과 관련된 것이다. 서계는 박필성 집안의 비문을 작성하면서 나중에 추증된 벼슬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박필성의 집안에서 비문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을 하려 한 일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서계는 약천에게 지문을 구하였다.²²⁾ 서계의 편지만 남아 있어 약천의 견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서계의 편지 내용으로 핵심적인 의견 차이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전략) 지금 자세히 분석한 태형의 편지를 받아 보니 결국에 가서는 진실로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어쨌든 모두 불편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事端의 변화는 한 가지로 개괄하여 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소루한 자가 잘못을 범하기 쉬움은 당연한 법입니다.

보내오신 편지의 요지는 엽등하여 推恩하는 한 가지 일이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國典의 삼대를 추증하는 글은 반드시 부친이 돌아가신 뒤에 일시에 함께 추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친은 살아 계시는데 조부와 증조가 이미 돌아가신 자는 돌아가신 분을 먼저 추증할 수 있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모두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조상을 추은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부친과 조부가 돌아가시고 증조가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부친과 조부 兩代를 추은하는 것은 엽등하는 일이 없으니 오히려 삼대를 추증하는 글에 맞기는 하지만 만약 증조가 돌아가신다면 장차 이 예로 더하려 한다는 혐의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내오신 편지 가운데 “추증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묘석에 추증의 직함을 새길 한쪽 자리를 비워 두고 새기는 것과 혐의가 같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는 혹 완전히 그렇지 않은

22) 1696년(숙종22). 4.15, 4.17. (『서계집』 권19, 390~391면.)

점이 있는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 일의 단안은 반드시 함께 추증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돌아가시는 대로 그에 따라서 추증하는 것의 의리와 사체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후략)”²³⁾

논의의 핵심은 돌아가신 분의 묘석을 새길 때에 나중에 추증될 것을 고려하여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시점의 것을 기준으로만 작성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서계는 “본래 관직을 추증하는 것은 비록 영광된 일이지는 하지만 결국에는 문식을 더하는 형식에 불과한 일이 되고 말 것이므로 묘표 가운데 다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전에 남을 위해 비문을 지을 적에 추증된 관직을 대부분 빼었다.”²⁴⁾고 밝히고 있고, 이에 비해 약전은 추증될 것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계는 비문을 지을 적에 자기 나름의 원칙적인 면을 고수하고 있고, 약전은 비문을 요청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까지를 고려하여 처신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을 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선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증된 관직까지 기재해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편지의 말미에서 서계는 “금평 집안에서 비문 수정 문제로 찾아온다면 비문은 전에 지어졌고 추증은 나중에 되었으므로 굳이 다시 고칠 필요가

23) “(前略)今蒙細剖 責以處其究竟 誠有可否之間俱涉不便者 始知事端之變 難以一槩而論 宜乎疏羸者之易失也 來教中大要 是躡推一節之有礙 不審國典贈三代之文 謂必待父亡後一時並贈乎 抑謂父在而祖曾已亡者 可以先贈其亡者乎 皆不可斷知也 設有人職當推恩 父與祖俱亡而曾祖尚在 則其推恩兩代 無躡等之事 不知猶合於追贈三代之文 而無若亡則將以此加之之嫌耶 書中有預贈之語 謂與墓石偏刻者嫌同 此則或似有未盡然者 不知如何 蓋此事斷案 在於必待並贈與可以隨亡隨贈之義理事體爲如何耳(後略).” 1696년(숙종22). 4.17.([『서계집』 권19, 390~391면.)

24) “本謂贈官雖榮 終歸彌文 碑表中不必盡載 故從前爲人作文 其贈官多闕之.”

없다고 사양할 것이지만 저가 만약 태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촉한다면 또한 굳이 고집할 마음은 없으니, 대개 일이 혹 과실을 면치 못하였다 라도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또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²⁵⁾라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약천의 조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계와 약천이 편지로 논의한 세 번째 문제는 『書經』 <禹貢>편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²⁶⁾ 서계의 편지는 날짜 미상이지만, 약천의 편지를 기준으로 보면 1698년(숙종24) 9월 2일 즈음에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인물의 편지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書經》<禹貢>에 기록된 黑水에 대해서는 글을 완전히 다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전에 누차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뜻이 자상하여 눈앞에 선히 보이는 듯할 뿐만이 아니라 혼매하고 미혹한 생각에 끝내 감히 경전을 잘못되었다고 여겨 새로 들은 내용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스스로 구설에 집착해서만은 아닙니다. 일찍이 또한 경전에 위배되지 않은 근대에 만들어진 圖志 및 지난번에 말씀하신 滇南 지방 토관의 시를 대략 섭렵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날 만에 겨우 이 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곧 이곳에 있는 도지 및 적어 둔 전남 지방 사람의 시를 받들어 올려니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국경 밖의 물들 가운데 長江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오직 금사와

25) “錦平姑未來請 來則當辭以文在前贈在後 不必追改 彼若如教示中意 見迫不已 則亦無必執之意 蓋事雖或不免失錯 既成之後 則亦無可如何耳.”

26) 이 외에도 서간을 통해 서계가 약천과 학문적 논의를 한 것은 『老子』와 관련된 부분, 『孟子』 <滕文公 上>, 十一稅數와 관련된 것이 있다. 그 중에서 두 인물이 주고받은 서간이 남아 있고, 저술 연대가 추정 가능한 작품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표1> 서간 목록 참조.)

대도 두 줄기뿐이고, 그 나머지 이수, 여수, 유강, 반강, 당곡, 도니 및 난창 노강, 녹천, 대거, 빈랑강 등의 여러 물줄기는 모두 큰 내와 큰 골짜기로서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보면, 금사는 이미 장강으로 들어가고 다른 물들은 물줄기를 끊고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태형의 말씀은 이미 영성한 듯합니다. 더구나 흑수는 또 여러 물줄기의 밖에 있고 곤륜산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데 있어서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부디 세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필묵으로 다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²⁷⁾

<2>

“(전략) 보내 주신 지도와 수많은 가르침, 滇南 土官의 시와 升菴의 주석은 모두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헤아려 보건대 이는 가죽신을 신고 발바닥을 굽는 것과 같아 성에 차지 않습니다. 《書經》<禹貢>에 표시된 여러 州의 경계와 산천은 모두 가까운 지역으로 五服의 국경 안에 들어 있는데, 어찌하여 유독 兪주와 양주의 경계로 삼은 黑水만은 가까운 지역의 산천을 버려두고서 멀리 만리 밖의 星宿海와 靑海 밖에 있는 天竺의 여러 나라를 관통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겠습니까. 이는 전혀 사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현명한 자가 이것을 본다면 한눈에 옳지 않음을 분명히 알 것이니, 어떻습니까?

<우공>의 集注와 先儒의 諸說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매번 咸寧성과 成都 및 토번의 접경 지역에서 榆葉河 등의 여러 물을 찾아내어 이것을 흑수의 증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兪주의 서쪽에서 나오는

27) “禹貢所記黑水 前雖屢蒙開誨 以書有未可盡信之意 指畫之勤 不翅如列眼中 昏愚迷蔽 終不敢以經爲誤而悅於新聞者 不但尙自粘滯舊說 會亦有略涉近代所爲圖志之不倍於經者及向所言滇南土官之詩 數日來纔搜出此詩 故輒以此中所有圖志及所錄滇人詩奉納 以備一閱 竟不知如何 蓋徼外諸水之入江者 唯金沙 大渡二流 其餘若灑水 麗水 柳江 盤江 唐谷 都泥及蘭滄 路江 麓川 大居檳榔江諸流 皆大川巨壑而皆入于海 則台教所云金沙既入于江 他水必無截流而南者 已恐其疏況黑水又在諸流之外 絕崑崙而南出者乎 千萬唯在細檢 非筆墨所盡.” 『서계집』 권19, 391~392면.

물은 반드시 《漢書》의 이른바 “서역의 南山이 한나라의 南山과 서로 이어졌다.”는 곳에서 막혀서 통하여 흐르지 못할 것이요, 성도의 서쪽에서 나온 것은 또 반드시 金沙江에 이르러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고 남해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전에 의심스럽게 여겨 만들어 아뢰었던 것입니다. 만약 멀리 만리 밖의 물을 흑수라 하여 <우공>의 웅주와 양주의 경계에 억지로 끌어들여 붙인다면 “털 밖에 나온다.”는 속담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지도는 우선 남겨 두었다가 후일에 돌려드릴 작정입니다. 이만 줄입니다.(후략)”²⁸⁾

<1>, <2>는 서계와 약천이 서로에게 보낸 편지이다. 서계는 六經 주해서인 『사변록』을 저술하면서 서경과 관련된 부분도 다루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서계가 저술한 『尙書思辨錄』과 관련된 논의로 파악된다.

『서경』의 <우공> 편은 導山과 導水로 지칭되는 산천지리와 貢賦에 관한 기술 등이 주된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우공> 편은 문장이 난해하여 주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주자와 채침이 경전의 부분적 무오류성을 주장한 데 비해, 서계는 경전의 무오류성을 주장한 점이 크게 다르다.²⁹⁾

28) “(前略)下送地圖及示教多少 滇南土官詩升菴注釋並依覽 而以賤意揆之 猶似隔靴搔癢 槩禹貢諸州所表地界山川 皆是近地入於五服疆理之中者也 何獨於黑水舍近境之山川 乃以遙遙萬里外星宿海青海之外 穿過天竺諸國入海者 爲雍梁之界表耶 此在事理 千萬不近 明者見之則可以一披瞭然其不然 如何如何 禹貢集注及先儒諸說 不及於此 每以陝西成都與吐蕃接界之地 覓出榆葉河等諸水 欲以爲黑水之證 若然則出於雍州之西者 必限隔於漢書所謂西域南山 與漢南山相屬者 不得通流 其出於成都之西者 又必到金沙江合爲西流 不可入南海 此弟前所奉告以爲疑者也 若以萬里荒外之水謂之黑水 傳會於禹貢雍梁之界 則無乃近於鄙諺所謂出毛外者耶 地圖姑留隨後呈還是計 不宣(後略).” 『약천집』 권30, <答西溪>, 504면.

29) 김종수, 서계 박세당의 『상서·우공』편 주해 일고, 『탈경계인문학』 4권, 이화인문과학원, 2009, 94~100면.

이런 점은 서계의 편지 도입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약천이 서계에게 <우공> 편의 黑水에 대해 경전과는 다른 의견을 보내왔던 것으로 추정되나, 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경전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구설에 얽매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圖志와 지방 토관들의 시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약천은 지리적인 거리와 특색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차이가 있다. 서계가 보내준 지도와 시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약천은 그다지 만족스러워 하지 않고 있다. 약천도 일찍이 <東史辨證>이란 산문을 통해 淇水·首陽山·眞番 등에 대해 변증하기도 했지만, 운문인 시를 통해서도 자신의 고증적 古土 인식 태도를 보여준 바 있기에³⁰⁾ 서계가 이에 대해 함께 논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후에 약천은 서계를 논한 언행록에서 이러한 이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나는 공과 언론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은 것이 또한 있었으니, 예를 들면 근일에 단종대왕을 복위하는 일과 우공의 黑水 같은 따위이다. 나는 미혹되어서 비록 감히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공을 따르지 못하였으나 공이 모두 말하는 것은 나와 의견이 합하는 합하지 않든 간에 모두 심장과 폐부의 진심에서 곧바로 나와 털끝만큼도 감추거나 숨기며 비꿈이 없다는 것을 아니, 이 때문에 종신토록 공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³¹⁾

누구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는 역사 고증 및 산천지리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면밀히 고찰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30) 성당제, 앞의 논문, 76면.

31) “余於公言論 其不合者亦有之 若近日端宗大王復辟 禹貢黑水之類 余之迷惑 雖不敢舍己而從公 然凡公所言 毋論與余合不合 皆知其直出於心腑之眞實 無一毫回互而移易者 此所以沒身而信服者也.” 1704년(숙종30), 『藥泉集』 권23, <西溪朴公世堂言行錄>, 366면.

이 경서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의견 조율 과정이다. 자신의 견해만을 독단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방과 소통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열의와 애정이 눈에 띈다.

이들이 편지로 논의한 네 번째 문제는 동봉 김시습의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1700년(숙종26) 12월에 약천이 서계에게 보낸 편지³²⁾에서 약천은 김시습을 서원에 봉안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서계와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인다. 약천은 김시습의 행적이 儒家의 전범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그를 사당의 제도로 대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원의 제도로 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³³⁾

3) 신변에 대한 염려와 友誼 표출

서계와 약천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서로 떨어져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과 신변을 염려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평생을 절친한 벗으로 교류했던 이들의 돈독한 관계를 생동감 있게 살필 수 있게 한다. 형편이 안 좋은 상대방에게 소소한 음식물을 보내기도 하고, 일상적인 문제나 질병과 관련된 꾸념에 가까운 탄식도 스스럼없이 표출한다.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그에 해당한다.

<1>

“심부름꾼이 이르러 그 편에 삼가 보내 주신 답장을 받고서 눈이 내린 뒤의 남은 추위에 태형의 체후가 만복함을 알았으니, 마음에 위안이 되고 감격스러움이 배로 지극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보내준 물건을 통해 굶주림

32) 『藥泉集』, 권30, <與西溪>, 505면.

33) 최윤정, 앞의 논문, 130~131면. (이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만 제시하였다.)

과 추위를 진념해주신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었고, 남은 은혜가 며느리와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으니, 매우 곡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후략).”³⁴⁾

<2>

“지난번에 편지를 받고 마음이 지극히 위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질병이 계속 이어져 생사를 구분하지 못한 지가 오래인지라 즉시 답장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으니, 서운해하고 한탄한들 어찌겠습니까.

저는 結城으로 돌아가려 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질병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질병이 다소 덜해져서 이제야 비로소 가솔들을 데리고 옮겨 갈 작정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음성을 받들 수 없을 듯하니, 슬퍼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자식을 통하여 들으니 鷺洲에 산을 파는 자가 있다고 하나 저는 근력이 이미 다하여 아침저녁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어찌 집을 지을 때이겠습니까. 元規의 藥石과 같은 좋은 충고를 너무 늦게 들은 것이 한스럽습니다. 입으로 한 절구를 읊어 편지 끝에 써서 올리니, 한번 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후략)”³⁵⁾

<1>은 날짜 미상의 서계 작품이고, <2>는 1696년(숙종22) 9월 8일에 약천이 쓴 편지이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작품은 서계와 약천의 돈독한 우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형편이 어려운 서계를 위해 약천이 보내준 물건은 서계 자신은 물론 며느리와 아이들에게

34) “委任至 伏承賜復 憑審雪後餘寒 台體萬福 區區慰感倍至 況此寄贈之物 深見俯軫飢凍 餘光又及婦兒 可謂委曲之甚 何以稱謝(後略).” 『서계집』, 권19, 389면.

35) “頃者手札 慰滿慰滿 弟病沈淹 死生未分者久矣 不即作答書 闕然至今 歉歎如何 弟久欲還結城 而病不能起發矣 近稍得一分之歇 方爲搬運家少計 此後恐不得更承營欸 悵然如何 因兒息聞有鷺洲賣山者云 而弟之筋力已盡 只俟朝暮溘然 此豈經營卜居之時哉 元規藥石之言 恨其遲聞也 口占一絕 書諸紙末 幸一莞爾也.” 『약천집』, 권30 <答西溪>, 503면.

까지 두루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서계는 굶주림과 추위를 겪고 있는 자신과 가족들의 처지를 숨김없이 모두 드러내고 있다.

한편, 약전은 이 해 4월에 장희빈의 부친묘 巫蠱獄을 조사하다가 자작극임이 밝혀지자, 張氏에 대해 重刑을 주장하는 金春澤 등 老論에 맞서 동궁의 보호를 위해 輕刑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中外의 비난이 거세지자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후 재상직을 맡지 않았다.³⁶⁾ 결성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질병으로 인해 지체된 사연, 집을 지을 기력조차 없이 지쳐 버린 본인의 상태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쟁의 부침으로 인해 사직을 단행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한 편이 시로 읊어내는 여유도 부리고 있다.

이로부터 6년 뒤에 이들은 1년 차이를 두고 정쟁에 휩싸여 유배령을 받게 된다. 약전은 1702년(숙종28)에, 서계는 1703년(숙종29)에 74-75세라는 늦은 나이에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재차 휘말린다. 약전은 1701년 10월에 장희재의 일로 양사가 탄핵하자, 용인 비파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듬해 양사의 논핵으로 申途付處되어 牙山에 유배되었다가 11월에 방환되는 일을 겪는다.

그리고, 서계는 1702년에 백헌 이경석의 신도비명을 지으면서 우암 송시열을 지척한 일로 1703년 4월 館學 유생의 疏斥을 받고, 해조의 복계로 삭탈관직과 문외출송의 처분과 대계로 옥과에 원찬되는 명을 받는다. 다행히 판윤 이인엽의 상소로 원찬의 명이 취소되기는 하지만 이 해 8월 21일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³⁷⁾

이들의 편지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서로에 대해 염려하고 위로했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36) 『약전집』 연보. (이하 동일본 참조)

37) 『서계집』 연보.

<1>

“귀양 가게 될 줄 진작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면하지 못하였으니, 천명이 아니겠습니까. 配所는 어느 고을로 정해졌습니까? 답답한 마음 몹시 지극합니다.

저는 한번 걸린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노쇠함이 이미 심하니, 이는 또한 괴이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후로는 더 이상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정해진 것입니다. 이 점이 슬퍼할 만하고 한탄할 만하니 또한 장차 어이하겠습니까. 여든 나이에 도로에서 유리표박함을 사람들은 가엾게 여기지만 군자는 천명을 편안히 여겨 응당 이로써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믿는 바는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스스로 잘保重하여 그리워하는 구구한 세당의 심정을 위로해 주소서.”³⁸⁾

<2>

“노형이 남쪽으로 뿔출된 뒤에 또한 위문의 서찰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일찍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인사에 이처럼 흐리멍덩하였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금년의 장맛비는 일찍이 보기 드물었습니다. 배소에서 체후 건승하여 만복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노형을 그리워하는 구구한 마음이 실로 알지 않습니다.

육신이 아직 다하지 않아 혈떡거리는 숨이 오히려 붙어 있으나 또한 조석간에 근근이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뿐이니, 몇 달을 더 살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離群索居의 심회에 지나거나 좋을 때가 없습니다. 애초에 덧없는 세상의 단사가 또한 다만 여기에 그칠 뿐임을 생각지도 못하였으니, 말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38) “早知有此行矣 然終不得免焉者 歸之命耶 配所遠近 當在何鄉 鬱慮殊至 世堂一病沈淹 老衰已極 亦無足異 但從此不復有重會之日者 不待言而定矣 此爲可悲可恨 亦將奈何 八十之年 漂流道路 衆所愍然 而君子安命 不應以此略有撓損 所恃者在是而已 千萬惟乞善自將護 以慰區區戀戀之私.”1702년(숙종28). 5.15. (『서계집』 권19, 392면.)

얼핏 들으니, 노형이 장차 모든 것을 그만두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鷄竿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더 이상 대궐을 향할 뜻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이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서글픔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세도를 위해 自重自愛 하소서. 정신이 흐릿하여 이만 줄입니다.”³⁹⁾

<3>

“편지를 받들어 안후를 묻고자 하는 마음이 평상시에 그치지 않았는데, 老病이 날로 심하여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소식을 하지 못하니, 다만 우러러보며 답답해질 뿐입니다.

근래에 원지로 유배 가시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유배지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얼마 후에 또 듣자니 해명하는 자가 있어서 성상의 지엄하신 명령이 중지되었다 하니, 지극히 감축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자는 육신에 골몰하여 늙어도 그칠 줄 모르니 네댓 번 유배 가는 일이 당연하지만, 물욕 밖에 초연하신 형님께서 뜻밖에도 세상의 그물에 걸림이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용과 같은 분의 경계에 오히려 통달하지 못한 것이 있으셨는지요?

근자에 조섭하시는 기거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구구히 염려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기력이 날로 쇠진하여 조석 간에 죽을 사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몸을 이미 조물주에게 맡겼는데, 더구나 몸 밖의 휘방과 칭찬, 시비에 있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애오라지 이로써 위로하며 날짜만 보낼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글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만 절서에 따라 몸을保重하시기 바랄 뿐입니다.”⁴⁰⁾

39) “南貶而後 亦不能慰候 以早老病 人事憤憤如此 無可言者 今年雨潦 曾所罕觀 伏惟遷次中 體履袖相萬福 區區馳仰 實不自淺 世堂形骸尙未盡 喘息猶接 亦但假朝暮爾 不能以時月保 離索之懷 寢興無好時 初不料浮世萬事 亦只如是而已 謂之何哉 仄聞次第大捲而歸 想不以鷄竿有無 不復有向北之意 此尤令人不勝悵然也 千萬祈祝爲道自重 神識耄昏 不備.” 1702년(숙종28). 7.11. (『서계집』 권19, 392~393면.)

40) “欲奉書候 尋常不能已 而耄病日深 不能自振久矣 以致闕然 只用瞻結 近者因風

<1>, <2>는 서계가 유배령을 받은 약천에게 보낸 편지이고, <3>은 약천이 서계에게 보낸 것이다. 특히, <2>, <3>은 두 인물이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귀양 간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무탈하기를 비는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계가 약천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한 발언도 엿보인다. 근근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걱정하고 그의 거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있다.

약천이 서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정계 밖에 있었던 서계마저도 정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대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약천은 이 글을 쓰면서 원찬의 명이 취소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지만, 3개월 뒤에 서계가 세상을 떠나리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4. 書簡을 통한 교유의 가치와 의의 - 결론을 대신하여

서간은 발신자가 특정한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라는 장르상의 특징 때문에 여타의 산문과는 구별되는 가치를 지닌다. 편지를 쓴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며, 상대방과의 밀착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서간을 통해 살펴본 서계와 약천과의 교유 양상은 다른 장르의 글에서

得聞將有遠地之配 不勝驚愕 方欲送人於配所矣 俄又聞因有解之者 中寢嚴命云 無任感祝之至 如弟者汨沒形役 老而不止 宜其有四五流竄之事 不意兄主超然於物表 而亦爲世網所罣 乃至此之甚 未知於猶龍之戒 猶有所未達者耶 不審近者起居調攝若何 區區懸係 弟氣力日微 不過朝暮之人 此身既已付之於造化兒 而況毀譽是非之在身外者耶 聊以此自遣而已 多少非書可悉 只冀若序保重.” 1703년(숙종29) 5.9. (『약천집』 권30, 506면.)

는 발견하기 힘들었던 이들의 고뇌와 갈등, 時事와 학문에 대한 견해, 인간적인 애정 등을 보다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소론계의 주요 인물이었던 서계와 약천의 구체적인 관계를 포착할 수 있었다. 40대 이후에 석천동에서 은거를 하고 있었던 서계가 실제로는 현실적인 정계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약천의 거취에 대한 서계의 입장 표명에 여실히 드러난다. 약천의 거취에 대한 서계와 약천의 입장 차이는 약간 아이러니한 국면을 반영해준다.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를 떠나 있었던 서계는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고, 아직 정계에 남아 있었던 약천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서계는 자신보다도 약천이 당대 정치 상황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약천이 사직소를 제출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인 충고를 했던 서계의 태도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서계와 약천이 사상적, 정치적 동지로서 일생을 교류하기는 했지만, 時事와 학문을 논하는 데에는 엄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끊임없는 상호 비방만이 난무하던 시대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소통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논의를 경청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들이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정치적 노선을 유지하며 평생을 교류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원래부터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서로의 異見을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서간은 이러한 상호 관계를 재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며,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한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서간을 통해 소론의 대표자로 거론되는 두 인물의 공적인 면모만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모습까지 간취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 중에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만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힘 없이 병들어 버린 나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많았다. 늙고 병들어 떨리는 손으로 혹은 숨을 몰아쉬며 최후의 순간까지 서로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통해 이들의 진실된 신의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서간을 주고받으며 극한 상황에 처한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해줄 수 있었고, 개인적인 고통이나 世事에 상처받은 심신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었다.

정쟁이 많았던 시대, 하루하루 급박하게 살아나가야 했던 시기에 두 인물이 나누었던 서간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었을 것이며, 이들의 소통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들이 주고받았던 書簡이 동시대 다른 문인들의 서간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당대 書簡이 이들의 동류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다각도로 밝히는 작업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남구만, 『藥泉集』, 민족문화추진회, 1994.
 박세당, 『西溪集』, 민족문화추진회, 1994.
 윤증, 『明齋遺稿』, 민족문화추진회, 1994.
 『國譯 藥泉集』, 한국고전번역원, 2007.
 『國譯 西溪集』, 한국고전번역원, 2006.
 『國譯 明齋遺稿』, 한국고전번역원, 2006.
 『숙종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 강신엽, 『조선후기 소론 연구』, 봉명출판사, 1995, 1~408면.
- 김세정, 「명재 윤증과 서계 박세당의 학문과 교유 관계」, 『동서철학연구』 42호, 한국동서철학회, 2006, 115~143면.
- 김영주, 「조선후기 소론계 문인의 문학론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90면.
- _____,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3권,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3, 203~234면.
- 김종수, 「서계 박세당의 『상서·우공』편 주해 일고」, 『탈경계인문학』 4권, 이화인문과학원, 2009, 93~129면.
- 성당제, 「약천 남구만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99면.
- 주영아, 「박세당의 사유 체계와 작품세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1, 1~192면.
- 최윤정, 「서계 박세당 문학의 연구 -사상적 특징과 문학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1~181면.

ABSTRACT

Research on the aspect of companionship between Park Sedang
and the Nam Kuman through the letter

Choi, Yun-Jeong

This research tries to highlight the aspect of companionship between Seogye, Park Sedang, and Yarkchun, Nam Kuman, through the study of the letters between two persons. Park Sedang and the Nam Kuman ar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persons out of the group of Soron's scholars in the latter of Chosun dynasty. The letter has the different value from the normal literature genre since the sender thinks the receiver when he writes the letter.

The aspect of the companionship through the letters between Seogye and Yarkchun delicately shows their agony, conflict, opinions on the current events and study, and the humane affection which we can hardly find out in other genres.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are as below.

At first, they discussed on each other's position many times in the middle of troubled times. Secondly, they coordinated their different opinions through the exchange of letters whenever there were the differences on politics and studies. Thirdly, they truly worried about and consoled each others even though they were far away and exiled due to political controversy.

The letters between two persons would give them the power to sustain in a string of political controversies. This sort of communication method will have the similar meaningfulness at present.

Key Words Soron, Political controversy, Letter, Companionship, Opinion, Coordination, Communication.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